

대구주보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2014. 6. 22. (가해) 제1895호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 250-3048~9 <http://www.daegujobo.or.kr>



지좌성당 제대 위에 놓인 성작과 성합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 오늘의 전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요한 6,51-58 참조)

세상의 어느 종교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제물로 바치고 나누어 먹지 않습니다. 오직 가톨릭의 성찬례에서만, 예수님의 명령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창조주께서 음식이 되어 피조물에게 오시는 것을 사람이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오늘도 일어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절대자가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못하실 일이 없는 아버지로 사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제1독서 신명 8,2-3,14ㄴ-16ㄱ **제2독서** 1코린 10,16-17 **복음** 요한 6,51-58

입당송 내 백성에게 나는 기름진 참밀을 먹고, 바위틈의 석청으로 배부르게 하였노라.

화답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김상열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 성미카엘성당 주임

그리스도의 몸

오늘은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이 기쁘고도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체성사의 모든 예식은 영성체로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미사 중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제는 신자들 앞에 성체를 들어 보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손히 두 손을 모아 ‘아멘’이라고 외치며 성체를 우리 안에 받아 모시게 됩니다. 이 짧은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체성사의 은총에 얼마나 충실히 참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영성체 예식에 있어 우리 앞에 성체를 들어 보이며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선언은 단순하지만 여러 가지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멘’이란 응답도 우리들의 다양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이 선언은 먼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그마한 빵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습니까라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참으로 믿습니다라는 의미로 힘차면서도 확고하게 ‘아멘’이란 말로 응답합니다. 모든 성사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이 선언은 또한 우리의 ‘바람’, 즉 ‘원의(願意)’를 확인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진심으로 당신 안에 받아 모시기를 원합니까라는 질문이 이 선언 안에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멘’이라는 확고한 응답을 통하여 주님을 진심으로 맞이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이 선언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확고한 결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축복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아멘’이라는 확고한 응답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 서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함께 살아 갈 것을 결심합니다. 또한 당연히 이 결심은 실천을 동반해야 합니다. 성체는 누구나 먹기만 하면 효과를 내는 보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성체를 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총을 헛되이 소모해 버린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성체를 받아 모셨으면서도 아직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 안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할 때 성체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장 큰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로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필로**

대구지역 순교자 20위의 삶을 묵상하며 - 대구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온화한 성품의 모범

김희성 프란치스코(1765 - 1816)의 순교이야기

좋지 않은 일로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면 행동도 급해진다. 그런 때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린 채 허둥거리며 당황하고 불안하거나 심지어 화를 내기도 한다. 그게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일일 때는 더 경황이 없어진다. 순교자 김희성 프란치스코는 달랐다. 밀고자가 포졸들을 이끌고 그를 체포하러왔을 때, 그는 아들에게 당부하기를 “나는 하느님의 명을 따라 가야 한다마는,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집안을 보살피되, 특히 할머니를 극진히 모시거라.”하고서 아주 기쁜 표정으로 포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올리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며 위로해 드리고, 아내에게는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자식들을 잘 가르친 뒤에 자신의 뒤를 따르도록 당부하였다. 그는 오랏줄에 묶인 후 편안하고 웃는 얼굴로 포졸을 따랐으며 그의 마음은 천국을 향한 기쁨으로 넘쳐났다.



김희성 프란치스코
(1765 - 1816)

본디 그는 급한 성격이었으나 끊임없는 고신극기의 수행을 통해 온화해졌기에 사람들마다 그의 성품을 찬탄하였다. 안동 관아로 끌려간 그는 그곳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은 후 다시 대구로 이송되어 고문을 받았다. 그가 관원들이 오히려 당황할 정도로 항구하게 신앙을 증거하자, 대구 감사는 그의 심지가 확고해 더 이상 배교시킬 수 없음을 판단했다. 조정에 올린 그에 관한 서신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 되어 있다. “김희성은 집 안에 천주교 서적을 숨겨 왔으며, 평소에 십계명과 같은 요사한 글들을 이웃과 함께 외우곤 하였습니다.”

1765년 충청도 예산 여사울에서 순교자 김광옥 안드레아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쓰면서 살았다. 아버지의 순교 후 재물을 버리고 경상도 영양으로 숨어들어 가족들과 함께 금욕생활과 고신극기를 실천하며 살았다. 1815년 3월에 체포되어 대구에서 옥중 생활을 하다가 1816년 12월, 그의 나이 51세에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순교자 김희성 프란치스코님! 저희도 매일의 일상에서 덕행을 닦아 갑작스런 어려움에도 온화한 모습으로 주님이 드러나도록 빌어주소서. **필문**

대구지역 순교자 20위의 삶을 묵상하며 - 대구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심지(心地)가 반듯한 분

구성열 바르바라(?-1816)의 순교이야기

구성열 바르바라
(?-1816)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다. 나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말도 붙이지 않는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있는 듯 없는 듯 드러나지 않게 자기 맡은 일을 묵묵히 하시는 분... 특히 본당에서 봉사하는 어머니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은 것은 왜 그럴까? 다들 수줍어 하시면서도 심지(心地)가 얼마나 반듯한지... 순교자 구성열 바르바라의 모습과 그런 어머니들의 얼굴이 겹쳐진다.

충청도 홍주 출신인 구성열 바르바라는 본래 성격이 온화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덕행이 남달라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1801년 신유박해 이전에 입교한 그녀는 첫 남편을 잃고 서석봉 안드레아에게 개가하였다. 그 후 바르바라 부부는 사위인 최봉한 프란치스코 부부와 함께 교우들이 모여 사는 경상도 청송의 노래산을 찾아가 그곳 교우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1815년 부활 대축일에 밀고자를 앞세우고 노래산을 습격한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경주로 압송되었다. 체포될 당시 그녀는 심한 고문을 당하였지만 이를 잘 이겨냈다. 하지만 다시 삼모장으로 맞는 참혹한 고통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 배교할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이때 그녀의 사위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자.”며 끊임없이 권면하자 다시 힘을 얻은 후 하느님을 위해 함께 목숨을 바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배교의 유혹이 사라짐으로써 그녀는 갖은 고문 속에서도 굳건하게 견딜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과 사위 그리고 다른 교우들과 함께 다시 감사가 주재하는 대구감영으로 압송되어 여러 차례의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끝까지 견뎠다. 17개월이 넘는 힘든 옥중 생활 도중에 남편과 사위가 먼저 옥사하는 인간적 아픔까지도 감수해야 했으니 하느님께 대한 그녀의 믿음은 특별했으리라. 1816년 12월 대구 형장에서 순교할 무렵 그녀는 약 40세였으며 참수 전 마지막 기회를 준 관장에게 다음의 말을 남겼다. “예수 마리아께서 저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빨리 하늘로 올라오라고 초대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덧없는 이 목숨을 보존하고자 배교를 하여 하늘의 영복을 잃겠습니까?”

순교자 구성열 바르바라님!

때론 흔들리지만 저희도 반듯한 심지로 묵묵히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기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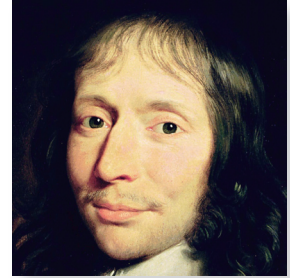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세상에서 가장 판이 큰 도박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1623-1662)이 『팡세』에 남긴 말입니다. 이 놀라운 천재는 16세에 이미 수학자로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고 19세에는 계산기를 발명했으며 확률의 이론을 정립하는가 하면 23세에는 유체역학을 창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한 열렬한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명량하고 쾌락을 즐기기는 하였지만 병약했던 파스칼은 31세 때 사고를 당해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앓아누워 있는 동안 회심하여 남은 인생을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파스칼은 회복되고 나서 자신의 옷 안감에 “철학자의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의 하느님을. 주님, 당신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이라고 박음질하여 죽을 때까지 몸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이후 파스칼은 세속적인 교류와 유흥을 모두 끊어버리고 가난

한 사람들과 병원을 찾아다니며 봉사의 삶을 살았고, 저 유명한 『팡세』도 본래 철학서로 쓴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신덕과 겸손을 설파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수학자답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논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도박을 해야 한다. 승률은 반반인데, 만약 계시지 않는다는 데 걸었다가 혹 계신다면 영원한 벌을 얻을 것이고 계시지 않는다면 본전이다. 계신다는 데 걸었다가 혹 계시지 않는다면 잠시의 인생을 착하게 사느라고 손해를 좀 보았겠지만, 계신다면 영복을 얻게 된다. 유한한 인생을 걸어 무한을 얻는 도박이므로 무조건 하느님이 계신다는 데 걸어야 한다.” **▶**



금주의 성인

6월 22일	성 바울리노(주교, 저술가, 놀라, 353~431년), 성 알바노(순교자, 209년) 성 요한 피셔(추기경, 순교자, 로체스터, 1469~1535년), 성녀 콘소르시아(수녀, 570년) 성 토마스 모어(인본주의자, 순교자, 1477~1535년)
6월 23일	성 란프랑코(주교, 파비아, 1194년), 성 리베르토(주교, 캄브레, 1076년) 성녀 아그리피나(동정순교자, 로마, 262년), 성녀 에텔드레다(왕비, 수녀원장, 엘리, 679년)
6월 24일	성녀 루치아(동정순교자, 로마), 성 루몰도(주교, 순교자, 말린, 775년경) 성 심플리치오(주교, 오튀, 4세기경)
6월 25일	성 갈리카노(순교자, 352년), 성 프로스페르(평신도, 신학자, 시인, 아키텐, 390~455년) 성 막시모(주교, 토리노, 380~467년), 성 몰록(주교, 스코틀랜드, 572년) 성녀 에우로시아(동정순교자, 야카, 8세기), 성녀 페브로니아(동정순교자, 니시비스, 304년)
6월 26일	성 막센시오(수도원장, 515년경), 성 비질리오(주교, 순교자, 트렌토, 405년) 성 살비오(주교, 순교자, 768년), 성 펠라지오(소년, 순교자, 오비에도, 925년)
6월 27일	성 라디슬라오(왕, 헝가리, 1040~1095년), 성 벤베누토(수사, 구비오, 1232년) 성 삼손(신부, 530년), 성 치릴로(총대주교, 교회학자, 교부, 알렉산드리아, 380~444년)
6월 28일	성녀 마르첼라(순교자, 알렉산드리아, 202년), 성녀 빈첸시아(설립자, 1784~1847년) 성 이레네오(교부, 주교, 순교자, 리옹, 140~202년경), 성 플루타르코(순교자, 202년)

사제 성화를 위한 기도 주간

(2014년 6월 22일~26일)

교구에서는 6월 22일(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부터 6월 27일(예수 성심 대축일)까지를 교구 '사제 성화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당에서는 6월 22일~26일까지 미사 전이나 후에 아래의 지향으로 신자들이 다 함께 '사제를 위한 기도'를 바쳐 주십시오.

기도지향



1. 첫째 날 (6월 22일, 주일) "사제 직무의 성화를 위하여"
2. 둘째 날 (6월 23일, 월) "주교와 사제단의 일치를 위하여"
3. 셋째 날 (6월 24일, 화) "사제들과 신자들의 일치를 위하여"
4. 넷째 날 (6월 25일, 수) "해외 선교 사제들과 공동체를 위하여"
5. 다섯째 날 (6월 26일, 목) "사제성소의 증가를 위하여"

사제들을 위한 기도

(새로운 마음)

오소서 성령이시여,
하느님의 신비를 관리하는 사제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소서.
그들이 받은 교육과 소양을 새롭게 하시어,
그들이 받은 신품성사가
과연 놀라운 계시였음을 깨닫고,
오늘도 내일도, 항상 새로운 정력으로
주님의 성체와 신비체에 대한
그들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언제나 다시 젊어지고 기뻐하는
새 마음을 주소서.

(순결한 마음)

오소서 성령이시여,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인 사제들에게
순결한 마음을 주소서.
또한 그들로 하여금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천주이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총으로 살아가며
일편단심 그리스도만을
최고의 대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그 사랑의 풍요와 환희와 깊이를 맛들이리이다.

악이라면 이를 알아보고 쳐부수고
피할 줄 밖에 모르는 순결한 마음을 주소서.
감수성 강하면서도 겁도 낼 줄 아는
어린이의 마음 같은 순결한 마음을 주소서.

(넓은 마음)

오소서 성령이시여,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는 사제들에게
넓은 마음을 주소서.
침묵 가운데 힘차게 타이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들으며,
온갖 불미한 야심과
덧없는 인간 경쟁을 전혀 모르는 마음,
거룩한 교회만을 염려하며,
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보려는 넓은 마음
을 주소서.
온 교회와 전 세계를 포용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넓고 강한 마음을 주소서.
온갖 유혹과 시련, 온갖 실증과 피로,
온갖 환멸과 모욕을 견디어 내는
넓고 강한 마음을 주소서.

미사안내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6월 23일(월) 11:00 수성성당		6월 24일(화) 14:00 신암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6월 23일(월) 11:00 도량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6월 25일(수) 14:00 토마스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6월 23일(월) 11:00 계산성당		6월 25일(수) 10:00 죽도성당
1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6월 24일(화) 14:00 계산성당	바뇌기도회 월례미사	6월 26일(목) 14:00 삼덕성당
김천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6월 25일(수) 10:00 평화성당	대구지역 유아,초중등교사들을 위한 미사	6월 26일(목) 19:00 성모당
김천지역 유아,초중등교사들을 위한 미사	6월 25일(수) 19:00 황금성당	—	—

성소 | 피정

2박 3일 무료 피정(작은예수회)

기간: 6.27(금)~29(일)

장소: 가평 작은예수회마을

내용: 모든 질병과 어두움 버리기

출발: 대구시민회관 11:40

문의: 박데레사, (010)2646-0583

1차 베네딕도살이 청년 피정

기간: 7.2(수)~6(일) 4박 5일

장소: 톡정포교베네딕도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8519-3431 / (010)9347-3431

젊은이 침묵 피정

기간: 7.5(토) 16:00~6(일) 17:00

주제: 네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문의: (010)6805-7665

제109차 대구 선택주말

기간: 7.11(금)~13(일),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미혼남녀신자, 예비자(선착순 50명)

문의: 김 하상바로, (010)4244-0264

<http://cafe.daum.net/daeguchoice>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321차: 7.11(금)~13(일)

322차: 7.25(금)~27(일)

장소: 한티 피정의 집

문의: 대구 ME, 983-0521

부산6차 성경통독 효소단식 피정

기간: 7.18(금)~21(일)

장소: 부산 광안리 성분도은혜의집

회비: 32만 원

문의: 한국가톨릭교수회,

(010)9363-7784 / (010)3806-7784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기간: 7.19(토) 11:00~20(일) 16:00

회비: 5만 원 / 문의: (010)5490-5345

가르멜 기도학교(주일 피정식)

기간: 7.26(토)~27(일) 1박 2일

매월 마지막 주 / 5만 원

장소: 마산 가르멜 피정의 집

대상: 고등·대학·일반(선착순 24명)

문의: (010)3169-7416 / (055)271-1708

교육 | 모집

성음악연수 (세실리아성음악협회)

기간: 7.28(월) 12:00~31(목) 16:00

장소: 가톨릭대 성심교정 국제관

내용: 지휘, 발성, 오르간, 그레고리오성가

교수: 최호영 신부 외, 연수비: 30만 원

문의: (010)3111-2559 / (010)6395-1181

인천교구 실버타운 <마리스텔라>

총 264세대 1,000병상

국제성모병원, 요양원 운영

매일미사, 다양한 신앙프로그램

문의: (032)280-1500

<http://www.marisstella.or.kr>

가톨릭신문 크루즈 성지순례

기간: 8.22(금)~9.1(월) 10박 11일

장소: 이탈리아, 튀니지, 스페인, 프랑스

비용: 내측 538만 원, 오션뷰 558만 원

발코니 588만원 - 대한항공 이용

문의: 428-5004, www.cttour.org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

기간: 10.21(화)~11.2(일)

주관: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문의: 김성태 신부, (010)4598-6912

<http://www.terrasanta.kr>

삼 성 화 학 건 설
옥상 우레탄 방수
주택수리 · 리모델링 · 칠
청구 **053)627-7204**
주택 **010-6347-0778**

하성협 법률사무소
변호사 하 성 협(베드로)
대구지방법원 옆 범어1번가 226호
☎ **053)753-6006**
010-5324-2701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 · 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미소나리 출장뷔페
예식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대표 양 에 향(마리아)
사회적기업 (주)서구펠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리.kr>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 심 내 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 · 순환기, 소화기 · 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바오로), 김지영(대건안드레아) 외 3인
들안길 네거리 ~ 황금성당 사이

인공신장실
야간투석
서부영남내과
영남의과대학교수 원장 김 영 진 (안드레아)
☎ **053)656-7533**

행복한 재활·요양 병원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원목실 운영, 월례미사 봉헌
원목팀장 김 미 행(요세피아)
이 범 수(대건안드레아)
☎ **053)426-6000** (종구 보건소 옆)

주)거들 짝
(결혼정보회사)
초혼, 재혼
대표전화 : **1600-8743**
서울 : **02)579-3889**
부산 : **051)817-3885**

행사 | 모임

제3회 한국 농아인의 날 행사

일시: 6.22(일) 10:00 / 미사 11:00
미사집전: 조환길(타대오) 대주교
장소: 남산동 성김대건기념관
문의: 청각장애인선교회, 254-3423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복음의 기쁨」강연회

일시: 6.25(수) 14:00~17:00
장소: 교구청 교육원 다동 대강당
강사: 마리오 토소 주교
(교황청 정의평화위원회 사무총장)
대상: 성직자, 수도자, 본당 사목위원, 신학생
주최: 교황방한준비위원회 영성분과

베리파스 남성중창단 창단연주회

일시: 6.23(월) 19:30
장소: 내당성당 성전
문의: 이선경(엠마누엘라),
(010)9479-7059

교육 | 모집

예수성심대축일과 함께하는 성시간

일시: 6.26(목) 저녁미사(19:30) 후
장소: 만촌동성당 / 문의: (010)4535-8343
주제: 주님, 제 눈물 당신 부대에 담으소서
내용: 성체절차와 소프라노(클라라 김)의 찬미, 오르간(장신옥), 바이올린(이철범) 찬조

제35기 예비신자교리반 봉사자 학교(주, 야간)

기간: 7.14(월)~18(금) / 3만 원
주간 14:00~17:00 야간 19:30~21:30
(30명 이하 교육 취소)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 마감: 7.8(화)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6

이해인 수녀 특강

일시: 7.6(일) 10:30 교중미사 후
장소: 만촌1동성당

청소년·청년 이웃사랑실천 UCC 공모전

대상: 1~5대리구 주일학교 / 청년단체
내용: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봉사
마감: 8.29(금)까지
문의: 2대리구 사회복지회, 744-5671
<http://cafe.daum.net/2caritas>

(사)푸른평화, 대경대학교 부설 대안사관고 소나무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 6월~8월 까지
대상: 고1~3학년 과정이 되는 학생
상담 문의: (010)5513-0088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음악1:1레슨(관현악, 성악, 피아노, 오르간), 교양 / 문화강좌(공예, 요리, 사진),
전문가양성 / 취업자격 과정 등
모집: 6.27(금)까지 / 개강: 6.30(월)부터
장소: 감삼동 / 문의: 660-5556~7

14년도 후기 2차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대학원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6.30(월)~7.11(금)

문의: 850-3505(교육대학원),
660-5511~13(특수대학원)
참고: <http://www.cu.ac.kr>

채용 | 안내

소름상담소 아르바이트 채용

근무시간: 매주 월~금, 14:00~18:00
자격: 상담관련 공부 경험있는
미혼 신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제출: kim-sinbu@hanmail.net
문의: 250-3111

(북)데레사소비엔타 영업부 남직원 채용

서류: 이력서, 등본(내사 접수)
마감: 7.20(일), 문의: 765-1500

평화계곡피정의집 취사원 채용

모집: 취사원, 숙식 가능한 60대(여)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평화계곡,
(054)931-0022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4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발견에 좋습니다

교구법원 공시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정남(젼마), 김현섭(레오),
전혜영(글라라), 김지영
문의: 254-9550

알아 두면 참 편한
계산성당 연도실
- 가톨릭 신자만을 위한 서비스
- 운구에서 발인까지 모든것
(장례절차/형정서류/성당에서 도와드릴)
상담안내 | **256-2046**
24시간 상담가능/도우미·상담사 무료

성모발현 성지순례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13일
출발일: 07월 29일(1차)
08월 05일(2차)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주)성지여행 프렐레(유스티노)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100년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새로운 100년
'대가대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니다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교육
함께하는 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100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우학원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웨딩사랑
www.weddingsarang.co.kr
대구 최대규모 365일 웨딩박람회
예식장, 웨딩드레스, 허니문 무료상담
웨딩준비 전문, 웨딩전선풀링 전문기업
최창열 053)425-8216
바실리오 010-9687-0500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14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송현역 2번 출구

참조은한당신 정신과
PSYCHIATRY CLINIC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보살펴 드립니다."
우울증/불안/불면증/정신의학적 상담
원장 정신과 전문의 차 상 훈(다니엘)
TEL. 053)752-2351
동구시장 삼거리, 수성도서관 맞은편